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도
도
도

창

페스티벌

2011.5.20 Fri ▶ 7.10 Sun

미리내소극장 (504-2544/www.acen.kr)

독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2011년 "아센"의 "제1회 부산창작 1인극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극단 '아센'의 2011년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은 갈수록 상업화에 물들고 관객의 공연작품 편중화 현상이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은 창작작품에 대한 의욕저하가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는 부산지역 연극현장의 현실에서 연극 고유의 정체성과 본질을 환원시키고 연극의 장르적 다양성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확장시켜서 지역연극의 침체성에서 탈피하여 창작의욕 고취와 현장연극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이 지향하는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리 부산지역 극작가의 순수 창작 모노드라마의 복원 및 작품적 완성도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이번 1인극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4개 작품은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고 꾸준한 연극현장활동을 이어오면서 부산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4인의 창작 1인극이다.

두 번째는, 참여작품 모두가 어려운 지역의 연극동토하에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고집하고 있는 작가,연출가,배우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 간 전국적으로 1인극 페스티벌 형식의 연극행사가 있기는 했지만,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희곡작가들의 창작 작품 페스티벌은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여도 우리나라 유일의 행사라는 점에서도 우리 지역 극작가,연출가,참여배우들의 역량과 기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각 참여작품이 지니고 있는 소재의 다양성과 통일된 주제의식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배우들의 역량이다. 윤 석이 / 호 민 / 구 민주 / 김 세진으로 포진된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은 각 배우가 우리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변함없이 현장연극작업에 임해온 모범이 되는 중견 배우들로 1인극 페스티벌을 통하여 우리지역 연극인의 역량과 현장연극의 노하우를 한껏 드러내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교류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내실에 충실한 연극 잔치로서의 의미이다.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은 규모나 외형보다는 작품내용과 양질의 작품성을 이루어내는데 충실한 공연행사로 그 내실을 다지고자 하며, 1회성 연극행사가 아닌 매년 개최되는 지속성을 바탕으로 알찬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지역민,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1인극 페스티벌을 계기로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 마케팅 전략과 아울러 연극 보기의 다양성 혹은 연극 고유의 독특성을 선보일 것이며, 젊은 관객층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공연관객 유도화를 지향하며 특히 지역민,중.장년층들의 행사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 의미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호 민

축하의 글

문화와 예술의 숲:
우리가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꿈꾸며...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먹고 살기 힘들던 예전에는 TV 보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이나 해먹으면 그게 최고의 주말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나 아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질이랄까,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모양이다.
문화와 예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다.
잠깐 시간을 내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그럼에도 관심을 두고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면
문화 예술이라는 정서의 숲은 메달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
문화와 예술은 숲처럼 보호하고 가꾸어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내내 거기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숲에서 정신과 건강을 회복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는다.
문화와 예술의 숲 또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정신적인 충전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극단 아센의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과 같은
경쟁력 있는 지역의 문화 예술 아이템을 지원해 주는 메세나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과 같은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 문화 향유 서비스들을
함께 공유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극단아센의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행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행사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되어
앞으로 부산 연극의 발전적 아이টে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축하인사 말에 가능하다

(주)쌍용선재 이용희 대표

獨



닭 잡아먹고 오리발

작 : 김문홍
연출: 구민주

5.20(금)▶6.3(금)/사직동 미리내소극장, 6.7(화)/8(수)/14(화)/15(수)/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獨 공연내용

2010년 7월 초연되어 평단과 관객의 극찬 속에 5개월 동안 118회 공연이라는 장기공연을 이끌어낸 작품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뛰어난 순발력과 연기적 흡입력으로 객석을 순식간에 빨아들인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의 풍자를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이라는 콘셉트로 즐거움과 웃음 속에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獨 작가의 말

1인극 배우는 정말 외롭다

전국 최초의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참가 작품 4 편중에서 두 작품이 나의 작품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은 1980년에는 이영식 배우에 의해서, 그리고 30년 뒤인 지금에 와서는 호민 배우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복마전」은 전국 초연으로 60 중반을 넘어선 윤석이 배우가 뛰어 들었다.
이 작품은 신소설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의 서사적 틀을 차용해서 '지금 이곳' 우리 시대와 사회의
환부를 건드려 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중견 연출가 이동재 선생이 오랜 침묵 끝에 내놓은 것이라
더욱 의의가 있고 감회가 새롭기 그지없다.

흔히 1인극 즉, 모노드라마를 '배우의 무덤' 이라고도 한다.
즉, 잘하면 본전이지만 잘못 하면 욕 얻어먹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1인극은 어렵고, 무섭고 또 외롭다는 말이다.
다른 등장인물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장면을 들락날락하면 덜 외롭고 또 서로 의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1인극은 달렁 혼자 무대 위에 알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 들어 당장이라도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왜 안 그럴겠는가. 수십 명의 관객이 숨 죽인 채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가 하면, 한 치의 실수라도
있거나 오차가 생기면 금세 모든 것이 탄로 나 버리지 않는가. 1인극 배우는 정말 외롭고 힘들다.
무대 위에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걸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악조건과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1인극 배우는 정말 대견스럽고 믿음직스럽기도 하다.
그러니 관객들은 혹시 무대 위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보이면 너그럽게 배우를 품어주기 바란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으면 그런 실수를 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면서도 또 1인극 배우는 정말 행복한 존재이다.
관객들의 모든 시선과 숨결, 사랑과 열정을 혼자서 다 받고 있으니 말이다.
연극이 힘을 잃으면 이 세상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다른 모든 예술이 다 그러하다라도 연극만은 힘을 놓아선 안 된다.
연극은 태생부터가 순수하고, 가난하고, 또한 수공업적이고,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예술이 아니었던가.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극단 아센과 미리내 소극장의 호민, 구민주 선생,
그리고 혼신의 힘으로 연기한 네 명의 배우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연극 만세! 배우 파이팅!

극작가 김문홍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배우 호민

Q.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며 마음상태는 어떠십니까?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감히 '전국최초'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지역 극작가의 창작 1인극을 우리 지역 배우들이 꾸며나가는, 우리 지역 연극인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임과 아울러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체연극문화행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연극적 정통성과 연극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행사이기에 시대적 유행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연극적 힘을 지닌 1인극을 선택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고 그만큼의 남다른 각오와 신념으로 우리 지역 연극의 우수성과 저력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자 그야말로 독하게 준비했다. '獨 한 페스티벌'이라는 명칭도 이러한 의미에서 공모를 통해 획득하였는데, 여러모로 이번 행사의 취지와 들어맞는 타이틀인 듯 싶다^^

Q. 모노드라마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품인데요, 평소에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에너지의 원천은 항상 함께 작업하는 동지들의 마음과 열정의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형의 공감대! 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Q.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개성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색깔까요?

연극의 시작점에서 보면 늘 막막한 바다 위에 표류하는 조각배에 타고 있는 심정이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서 관객과 만나는 마지막 정점으로 치달다 보면 문득, 과정에서 거센 풍랑과 비바람을 맞이해도 결국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온 한없이 펼쳐진 평화롭고 잔잔한 대양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일까? 굳이 배우로서의 컬러를 표현하자면 푸른색이지 싶다. 나의 마음이 그러하니 그렇게 표현되었지^^



지니 스토리 작 : 김세진
연출: 김세진

6/3(토) ▶ 6/6(월)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獨 공연내용

2009년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 델픽 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 수상작!
남녀노소 누구나 유쾌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마임형식 공연이다

파리

배고픈 지니를 귀찮게 하는 한 마리 파리!
누구나 파리에 대해서 한번쯤은 가져 보았음직한 증오심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즐겨보자!

바퀴벌레

공포가 극한으로 다 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입맞춤

일생의 각 시기마다 입맞춤으로 표현되는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
출생과 성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1인2역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머니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일생을 표현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한 작품

어느 광대이야기

하고 싶은 일과 살아간다는 현실 사이에 놓인 광대의 이야기!
광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유쾌하지만 허무한 웃음만을 남기는 작품과는 차별을 두었다

사진사

관객이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재미있는 이야기! 삶의 한 단면들에 대한 유쾌한 퍼포먼스!!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배우 김세진

Q.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며 마음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느 날 걸려온 호민 선배님의 전화 한 통 ^^;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라 창작 1인극 페스티벌에 대한 긴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모노드라마든 마임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공연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함. ㅎㅎ 음... 조금의 힘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

Q. 이번 작품이 자신의 배우인생에서 어디쯤 있으며 어떤 의미라고 느끼시나요?

40대를 준비하면서 연기 입문 20 여년을 돌아보고 바른길로 흔들리지 않는 '무소의 뿔 같은 선배 되기' 원년이랄까? ^^;

Q. 모노드라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나 자신과 관객 사이에서, 호흡을 만들고, 호흡을 조절하고, 공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 후의 성취감. 그리고 나만의 긍정적 후회.

Q. 모노드라마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품인데요, 평소에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힘, 물론 물리적인 힘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험을 통해 얻는 연기의 기술을 통한 에너지 관리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연기를 한다는 행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관점, 생각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하리라고 봄.

Q.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개성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색깔까요?

끝도 없는 심연의 블랙에서 결혼과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빛처럼 밝은 화이트로 변하고 있음.



복마전

작 : 김문홍
연출: 이동재

6/10(금) ▶ 6/24(금) 사직동 미라내소극장

獨 공연내용

47년 연기 인생의 첫 번째 1인극 페스티벌을 통해 창작 초연으로 올려지는 이번 공연에서 변화무쌍한 캐릭터의 변화 속에 원로배우의 관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복마전(伏魔殿): 명사 1.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2.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 사내가 한가한 주말에 산에 올랐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늘 오르던 산이건만 오늘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보니 산속에 사는 짐승들이 모여서 끝까지 금수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물의 영장이나 어찌하느냐고 해도 짐승들이 보기에 인간들은 영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부모를 내 핑계치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비판하는 까마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간사한 정치인들, 정조를 모르는 부인들을 꼬집는 여우, 개구리, 벌 등이 다들 인간들의 갖가지 악하고 추잡한 행태와 비리들을 비웃으며 한마디씩 거든다.

獨 연출의 변(辯)

연출의뢰를 받고 먼저 반갑고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 일인극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인극이라는 극형식은 배우 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점에서 연기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자 욕심을 내는 연극 형식이다. 그만큼 배우가 무대를 자유자재로 휘어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 판소리의 명창의 조건처럼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연기술 - 극형식이기도 하다. 배우 윤석이는 나와는 30 십여년간 척박한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듯 동고동락하며 연극을 함께한 동지(동반자)다. 능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한 나는 그를 믿는다. 평소 나는 배우 윤석이의 이번 작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감마저 있는 그리고 작업과 현실의 괴리를 늘 아쉬워했다.

작품 원제는 [금수회의록]이다. 1908년도 안국선(1878-1926) 선생의 우화형식을 빌어 세대를 풍자한 내간체 문학 소설로 쓰인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이 곳 부산의 문학 작가 김문홍 선생이 희곡화 해 일인극본으로 만들었다. 늘 작품을 연출할 때면 느끼는 거지만 연출이란 대본을 두시해서 읽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은(연극)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연출적 창조 행위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는 연습 때 참고가 되고 반연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아닌 한국 연극(일인극) 사상 부와 명성을 함께 얻어 전설이 된 일인극 "빨간 피터의 고백"의 배우故 추성웅(대학선배)의 숨은 뒷이야기까지도 언급하며 일인극의 고독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었다.

연습은 배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배우는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은 늘 재미있고 즐기면서 한다는 것. 연출은 권위주의에 빠져 배우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난 배우의 감정과 정서를 보듬으며 같은 배를 타고 공연이라는 공동된 목적지에 가는 좋은 친구였는지를 자문해본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1차 부산 공연을 끝내고 2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연출 변을 대신 한다

2011년 어느 봄 날 西河 이동재





제1회 부산 창작1인극 페스티벌

배우 윤석이

Q. 이번 작품이 자신의 배우인생에 어디쯤 있으며 어떤 의미라고 느끼시나요?

평생을 연극이라는 직업에 몸을 담아 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을 그네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야 하건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연극이라는 장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라도 하듯이 신호등만 기다리고 있기에, 시동은 걸려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뒤돌아보지 말고 신호등도 바라보지 말고 힘찬 두 다리로 언제 멈출지는 모르지만, 힘 있는 걸음으로 끝없는 도전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Q. 모노드라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 보고 싶은 직업의 장르다. 모노는 연기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옛말에도 있듯이 십 년 주기로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연기자의 자신을 정리한다고나 할까. 일인극을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는 요소이거나와 나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Q.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개성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색깔까요?

배우는 백지와 같다고 하지요. 백지 위에 화가가 물감칠을 할 때. 백지가 스스로 색깔을 낼 수 없듯이 배우는 인물에 따라 변화무쌍해야 한다고 하지요. 화가(연출 또는 지휘자)에 의해서, 색깔을 받으므로 해서, 백지(배우)는 그 색을 잘 받아들여 분명한 색을 나타낼 때 관객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순아 어디가니

작 : 이훈주
연출 : 호민

7/1(금) ▶ 7/10(일)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공연내용

최고의 여배우 구민주의 귀환! 서정적으로 진행되는 여타의 여성 모노드라마와의 차별성! 강렬하고 긴장감 있는 전개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 병든 엄마를 간호해주겠다고, 떠돌이 악장수를 따라간 어린 영순이. 이때부터 철없는 영순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펼쳐진다. 세월이 흘러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절망감에 함께 죽자는 떠돌이 악장수 영감을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영순, 영순이는 평범한 직장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한 마음에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떠돌이 악장수의 환영과 끝없이 이어지는 자살충동..... 사실중후군으로 이어지는 영순이의 삶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작가의 말

2006년 가을, 경성대 앞 소주집에서 구민주선생님과 호민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원래는 구민주선생님과 단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낯을 많이 가리시는 편이라 하시면서 호민선생님과 함께 오셨다고 했다. 그날 늦게까지 두 분과 소주를 마셨다. 나는 첫예를 임신 중이라 술은 마실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연극만이 세상에 전부" 인 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한 듯 안 취한 듯 다시 잊고 싶었던 무대의 조명 속으로 빠져들었다.

낯을 가리는 배우, 구민주, 그런 그녀가..... 무대에서는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인가?

2007년 무덤기로 소문난 그 여름에 미리내소극장 재개관기념공연으로 구민주 모노드라마(영순아 어디가니) 초연이 있었다. 나 역시 출산한 지 한달도 안된 통통 부은 상태였지만 공연장을 찾았다. 초연인 작품을 연습 중에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공연을 보러 가는 기분이란..... 뭐랄까, 내가 낳고 버린 자식을 한참 후에 다시 만나러 가는 기분일랄까? 아무튼, 생경스러운 나의 기분은 복잡했다. 작품에 대해서 내가 쓴 텍스트의 한계는(두고두고 뒷골이 시리다.) 내 뒷으로 남겨두고서라도, 구민주라는 배우의 열정과 에너지에 눈물이 난다. 사랑한다. 진정.

현재 2011년 <영순아 어디가니>와 같은 해에 태어난 우리 아이도 5살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 구민주선생님이 편찮으시다. 죄책감이 든다. 작품 때문인가 싶어서, 사실 난 이번 공연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안되겠지....? 대신 이 지면을 빌어 나에게 약속을 해본다. 다음 작품에는 행복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리라. 누구도 삶의 허무함에 눌러 죽어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작가 이훈주





Q.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며 마음상태는 어떠십니까?

【영순아, 어디가니】는 4년 전 미리내소극장에서 처음 공연했고 그 이듬해 한 차례 더 공연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년을 쉬었다 오랜 공백을 1인극으로 치르려니 솔직히 적지않게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나 자신을 믿으며 차곡차곡 연습하다 보면 부담감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Q. 이번 작품이 자신의 배우인생에 있어 어디쯤 있으며 어떤 의미라고 느끼시나요?

여러 의미가 있겠으나 적어도 혼자 서있는 무대에서 내가 하는 연극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느꼈다는 것.

Q. 모노드라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배우가 북치고 장구도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뒤편의 느낌일 테고 배우입장에선 온전히 나라는 배우 한 사람을 보려온 절대 우호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특권?? ㅎㅎ

Q. 모노드라마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품인데요, 평소에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무대위에서. 무대속에서

Q.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개성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색깔까요?

보라. 색?!!



부산 교통공사와 함께한 쇼케이스&퀴즈쇼, 상상유니브팀과 함께한 플래시몹!! 많은 분들과 함께 독!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화이팅!!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공연일정

공연 시간 : 평일 8시 / 토, 일, 공휴일 4시



닭 잡아 먹고 오리발

5. 20(금) ▶ 6. 3(금) /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6. 7(화) / 8(수) / 14(화) / 15(수) /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지니 스토리

6. 4(토) ▶ 6. 6(월) /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복마전

6. 10(금) ▶ 6. 24(금) /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영순아 어디가니

7. 1(금) ▶ 7. 10(일) /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오시는 길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슬픔이 밀려와도 꿈이 사라져가도 사실은 외로워도 울지말기 세상은~로지경!~로지경 속이다 ㅎ~ 유후~
-지수

독한 페스티벌은 혼자서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드는 연극입니다 즐기세요 독하게 준비 했으니 독하게 즐기세요
-무감막기현석 ㅋㅋ

떨하든 혼자하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 난 혼자아 아니라는거. -정은

모노 드라마는 과연 배우의 무덤인가? 지역 주민에게 부활을 안겨줄 것인가? -골목길 지나 김석웅

지금 극단 아센에서 연극으로 돌똥 회귀.. 獨한 Festival과 만나다.
혼자왔다 혼자가는게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축제이길! 나와 너와 우리와 여러분 모두가~ -玉

집밥, 식후커피, 엄마는 외계인, 간요, 티러, 나호, 삼성라이온즈 VS !! 그대와 함께♡ 독재 화이팅:D -ace25

연극은 정신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진정성의 힘을 믿습니다 -포편

사랑해요 인죽샘 -미모잠

사랑해요 호민샘 -꽃거지

꽃도 땀때를 알고 질때를 아는범인데 하물며 사랑이야. -규남

보이는 것만 믿지말자. 때론 믿어야 보이는 것도 있다. 연극의 힘을,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기획 최동민

스텝 : 호준철, 김현석, 유정은, 박규남, 반지수, 황자미, 윤준기, 김희지
기획 : 최동민, 구보경, 옥순주, 김석웅, 최유리





극단아센

- 2000 극단 아센 창단
- 2007 미리내소극장 개관(사직동)
- 2009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지정
- 2010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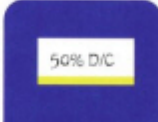

상업화되어가는 지역 연극 문화의 현실 속에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합니다
 연극 공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사회 서비스, 문화교육사업 등 문화 나눔과 문화 복지를 실현합니다

사업내용

예술창작활동 - 연극창작공연, 신진 예술가 육성, 배우 트레이닝, 지역 예술 창작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 시민 문화강좌, 연극연출 아카데미
 문화예술사회서비스 - 소외계층 객석기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아센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든든한 당신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극단아센 모든공연 무제한 관람	 동반자 연장 50% 할인	 공연, 행사 소식 우선 제공	 배우와의 만남 각종 행사 초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	--	---



여러분의 후원금은
 지역문화·농·산업에
 활용됩니다!

후원신청문의
 Tel : 504-2544
 E-mail : acen2000@hanmail.net
 홈페이지 : www.acen.kr

제1회 부산 **창작인극** 페스티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129-14
 TEL. 0511504-2544 E-mail: acen2000@hanmail.net

